

도내 유일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선정… 국비 2억1000만원 확보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우수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 역시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2억 1천 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와 효과 △지역 활성화 △행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의 기준이 적용됐으며,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가 지원이 결정되었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다가오는 제11회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오는 2025년 4월 6일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통해 국제마라톤대회로의 재도약과 군산의 대표 스포츠 명성에 맞는 풍성한 대회로 시민과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국내 엘리트 정상급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풀코스(42.195km), 10km, 5km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며, 2012년부터 국제대회로 추진되어 올해 10회를 맞았다.

다가오는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기존 4월 둘째 주 일요일에서 첫째 주 일요일로 대회 일정을 한주 앞당겨 오는 2025년 4월 6일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박차

사업비 115억원 투입… 2026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조성

익산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시는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달 연구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내년 국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용역 추진에 힘쓰고 있다.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험장비를 갖추고, 식물성 대체식품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을 적극 지원하는 시설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3,600㎡에

2026년까지 3년간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시는 연구지원센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푸드테크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푸드테크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익산시의 푸드테크 산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로 미디어과사드 보러 오세요’

두드림센터 외벽에 매일 밤 6시 30분부터 영상 투사

군산시민은 앞으로 국립군산대 근처를 지나면서 미디어과사드로 투사되는 다양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매일 저녁 두드림센터 외벽에 대학교 마스코트인 황룡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영상을 미디어과사드로 송출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되는 미디어과사드는 밤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까지 1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사업은 RIS 자율과제사업인 ‘대학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야간경관 조성’ 프로젝트이며, 국립군산대는 이미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9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앞으로 미디어과사드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디자인 공모전, 동아리 활동, 3D 그래픽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영상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과 캠퍼스 주변 경관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국립군산대학교는 2025년 을사년에도 지역 연계 활동을 적극 펼치며, 다함께 다시 새롭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원광대병원에 1억원 긴급 지급

전담간호사 운영 위한 재난관리기금 1억 지원… 병원 경영 활성화·의료진 이탈 최소화 도움 예상

익산시가 전공의 파업 장기화 사태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처음 있는 사례다.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분야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전담간호사(가칭)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전담간호사는 지역 중증·응급 진료 붐괴를 막고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원금은 병원 경영 활성화와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월부터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지역 중증·응급 진료의 붐괴를 막기 위해 대응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의료진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기 통장 발급기회 놓치지 마세요”

익산시·원광새마을금고,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협약 체결

내년 익산서 출생신고한 아기 명의 계좌 개설시 10만원 지원

익산시가 원광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지역사회 출산 장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원광새마을금고와 ‘익산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광새마을금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익산에서 출생한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10만 원을 지원하고, 익산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익산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첫만남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지원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익산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의 발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태어나 익산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이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원광새마을금고 본점(영등동)과 역전지점, 원대병원지점, 모현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광새마을금고(063-841-671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025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확정

군산시(시장 감임준)는 지난 23일 제2차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위원장 신원식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상정된 ‘2025년 군산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군산시 외국인 주민(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1만3,37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1,996명(17.5%)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군산시 총인구 26만5,764명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총인구의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부서 정책들을 총괄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다.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안)은 ‘서로 다른 We, 함께하는 We, 글로벌 성장 도시 군산’을 목표로 정해졌으며 ‘(행정안전부 기준)외국인 주민 비율 5.5% (법무부 기준)체류 외국인 수 11,500명 달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 △중증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4대 목표 및 14개 추진전략, 39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사업은 12개로 △법무부 주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운영’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의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 △외국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활동 지원’ △군내 4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이다.시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